

엔교지 절 다이코도

다이코도(大講堂)는 엔교지 절의 미쓰노도(三之堂)로 알려진 세 건물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불당은 강의 장소이며, 엔교지 절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건물은 10 세기에 가잔 법황(968~1008)의 명에 따라 지어졌으나, 현재의 2 층 건물은 15 세기에 재건된 것입니다. 건축 디자인은 대륙과 일본의 양식을 도입하였으며 천태종(天臺宗)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당의 본존이며 역사적인 석가모니불이 바닥이 파인 중앙의 공간에 모셔져 있는데, 한가운데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연꽃을 본뜬 대좌에 진좌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물리적, 형이상학적, 정신적인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는, 불교의 우주론에서 신성한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진 수미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가르침을 말하는 자세로 서 있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양쪽에 거느리고 있으며, 나아가 수미단의 네 모퉁이에는 사천왕이 배치되어 수호하고 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삼존상은 높은 위치에서 중정 너머로 미쓰노도 가운데 한 곳인 조교도(常行堂) 앞의 무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다이코도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기리기 위한 무악이 1 년에 몇 차례 봉납됩니다. 이 두 건물이 남북으로 나뉘어 마주보는 형식에서 미쓰노도가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코도와 각 상은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